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교과서 설계 방향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체계에서 의무교육 시기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공유한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어 중등 교육을 구성하는 한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구분되는 중학교 교육과정만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이유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급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지만, 그로 인하여 서로 다른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의 특징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역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와 같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은 3

년간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별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학교 급에 공통적으로 신설된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규정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다음과 같이 학교 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운영 방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하지만, 학교 자율시간의 개설 내용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학교 자율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그런데 이 시간을 활용한 개설 대상은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임에 비하여 중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이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에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비하여, 중학교에서는 과목(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 새로운 선택 과목)만을 개설할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자율시간 관련 규정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개설 내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u>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u>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li> <li>• 학교 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u>활동으로</u> 개설하여 운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li> <li>• 학교 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u>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u>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li> </ul>
시수 확보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li> </ul>	

※ 주: 밑줄은 필자가 학교급별 차이점을 강조하여 제시한 것임.

※ 출처: 교육부(2022a: 19, 21-22).

따라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그에 따른 교과서 설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본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될 중학교 교과서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 및 ‘그 외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 측면의 변화에 기반한 중학교 교과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92년 고시된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에 근거하여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화 및 지역화를 실현하고자 지속해서 개선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 연장선에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으로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22a: 4),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수 증감 범위의 확대 및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등을 통해서 그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가. 시수 증감 범위의 확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처음 도입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장으로 초등학교에 학교장 재량시간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7차 교육과정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교과 외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간의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둘을 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학교장 재량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두 교과 외 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장이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에서 20%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은 시

수를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수 증감 대상을 교과(군)에서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하였다. 예외적으로 체육, 예술 교과군은 시수를 감축할 수 없으며,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증감하더라도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수업 시수로 총 수업 시간 수를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수 증감의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됨에 따라 교과별로 담당 교사가 지도하는 중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시수 증감의 활용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과(군)의 시수 감축은 성취기준을 삭제하거나 약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감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21).

이상을 정리하여 시수 증감 범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 시수 증감 범위의 개선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수 증감 범위	20%	20%
시수 증감 대상	교과(군)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예외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시수는 감축할 수 없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시수는 감축할 수 없음
고려 사항	3년간 교과(군) 소개와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감축할 수 없음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감축할 수 없음

※ 출처: 교육부(2022a: 21; 2015: 12)

#### 나. 학교 자율시간의 도입

학교 자율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일부 가져와서 학교 나름의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학교가 “한 학기에 17주, 1년에 34주를 기준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간에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설될 “새로운 과목의 교육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

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관련하여 “학교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교육부, 2022a: 20-22).

학교 자율시간에 개설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 과목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이외의 범위라면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융합 등 주제 중심 과목, 진로 체험과 관련된 과목, 각 교과에 관한 탐구나 실험, 실습, 악기 연주, 신체 활동 등을 제공하는 과목, 그리고 기초소양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이나 활동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b: 69 참고).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량을 학기당 17주가 아닌 16주로 개발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여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방향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방향**

시수 확보 방안	학기별로 최대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
시수 활용 방안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
선택 과목의 내용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

※ 출처: 교육부(2022a: 21-22).

### 3.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급 간 또는 학년(군)간 전환기에 학생들의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a: 19). 이에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첫째, 2012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처음 등장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유학기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 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초-중학교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개선되었고, 둘째, 이 외에 고등학교 입학 앞둔 시기에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

색, 진학 준비 등”을 위한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교육부, 2022a: 22).

### 가. 초·중 전환기의 진로연계 교육: 자유학기

자유학기는 2012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중학교의 수업 및 평가 개선에 대한 특성이 더 강조되는 등 그 운영 취지가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학기의 긍정적인 효과로 중학교 수업의 개선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 및 학교에 따라서는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도 하여 왔다. 다만 자유학기는 그 출발 시점부터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으로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속해서 지적됐고, 자유학기의 편성 영역이 기존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복된다는 점, 자유학과 일반 학기 간의 특성이 달라 서로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이승미 외, 2022).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학기의 편성·운영 방안이 개선되었다(교육부, 2022a: 23).

첫째, 자유학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한 시기의 학생들을 위한 전환 교육으로서의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둘째, 자유학기에 대하여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년 또는 연계학기를 도입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지역이나 학교에서 한 개의 학기를 선택하여 편성·운영한다.

셋째, 자유학기의 편성 영역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등 두 가지 영역으로 단순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를 한 학기에 170시간 편성한 것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102시간 편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을 유지하여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

용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한다.

이상을 정리하여 자유학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 자유학기의 개선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	진로 탐색	진로연계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 경험)
기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년과 연계 학기 등	1개 학기
편성 영역	4개 영역(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2개 영역(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편성 시간	1개 학기에 170시간 (17주 기준 1주에 10시간 편성)	1개 학기에 102시간으로 편성 예정 (17주 기준 1주에 6시간 편성)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	

※ 출처: 교육부(2022a: 23, 2015: 13)

#### 나. 중·고 전환기의 진로연계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유형 선택을 포함한 진로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설계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진로연계 교육은 특정 학기에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학교의 필요 따라 여러 학기에서 진로연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연계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등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한 성취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9국02-07]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책이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는다.  
 [9과23-02]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학 분야를 조사하고, 진로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9기가01-07]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한다.

※ 출처: 교육부(2022c: 45, 2022d: 60, 2022e: 20)

이 외에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고등학교의 유형 및 고교학점제 전반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영역, 선택 과목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진로 설계를 일반 고등학교로만 치우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그 외의 변화

### 가. 기초소양 교육의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기초소양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과 학습과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u>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u>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u>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u></li> </ul>

※ 주: 밑줄은 필자 강조한 것임.

※ 출처: 교육부(2022a: 5, 9, 10, 15)

예를 들어 다음의 성취기준이 원활하게 학습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표 자료로 만드는 능력인 디지털 소양,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언어 소양,

세계와 지역의 변화와 영향력에 관련된 수치와 그래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읽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리 소양 등이 요구된다.

[9사(지리)01-03]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

※ 출처: 교육부(2022f: 40)

즉, 기초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교육부, 2021.11.24.: 13), 각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초소양은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도출된 기초소양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에 따라 학습되어야 한다.

첫째, 그 과목을 배우기 이전의 시기에 국어, 수학, 정보과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초소양의 기반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초소양의 학습 방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취기준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소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과의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실태에 근거하여 해당 학생들이 해당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소양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기초소양이 특정 성취기준을 적절히 학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취기준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초소양을 향상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서는 논술이나 프레젠테이션 등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교사가 수행평가 문항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실태에 근거하여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초소양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면,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기초소양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수·학습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네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 1)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성취기준은 핵심 아이디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 단편적 암기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과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히고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0).

### 2)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체험과 탐구 활동 및 개별 학습 활동과 협력적 문제 해결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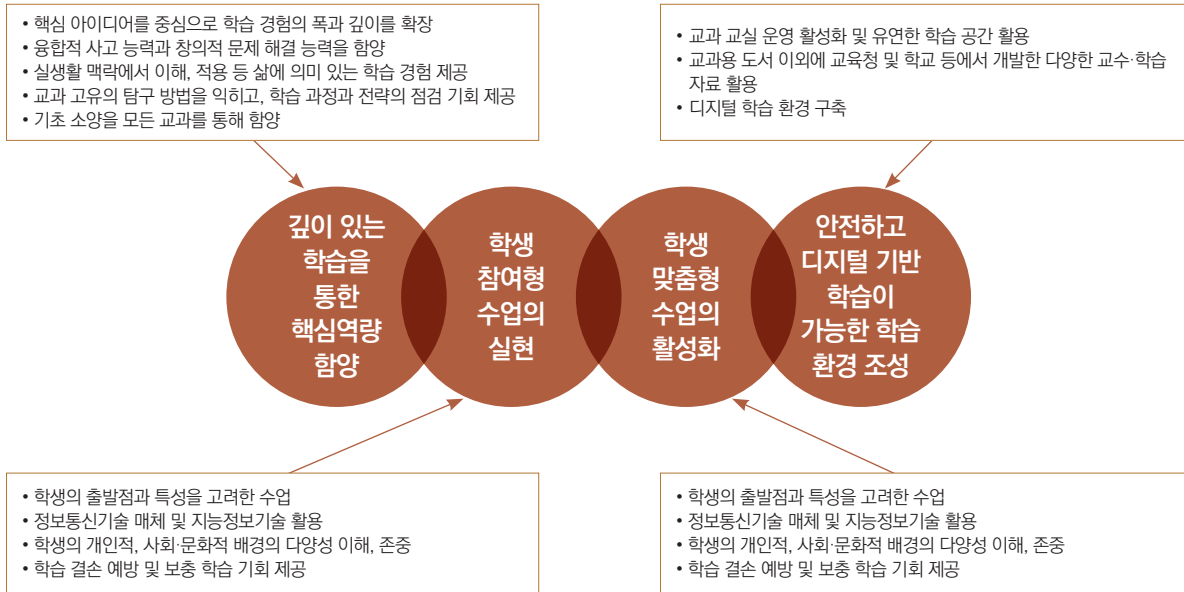
### 3)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또한 학생의 특성과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학생의 출발점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매체 및 지식기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적, 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이해·존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 4)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이상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방향이 실현되기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과 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는 한편 유연한 학습 공간 활용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 필요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의 확보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 출처: 교육부(2022a: 10-12)

그림 1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

## 5. 맺음말: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본문에서 다룬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근거하여 각 변화가 교육 현장에 실현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 1) 교과의 시수 증감 범위를 고려한 교과서 학습량의 융통성 실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시수 증감 범위 확대의 활용 범위가 교과(군)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확대되어 그 활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학기별 1주 분량의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자율시수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량이 학기별 17주 분량에서 16주 분량으로 감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관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학습 분량을 학기별 16주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시수 증감 폭의 적용이나 학교 자율시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16주 이상이나 이하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수를 정하여 16주 이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히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거나, 영역별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2) 학교 자율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과 활용의 용이성 확보

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과 인증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교과서 개발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개발에 교육 현장의 교원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교원에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교과서 개발과 인증에 대해 쉽게 접근하려는 방안으로서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종합 플랫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인증 과목과 교과서를 안내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과 교과서를 선택하여 간단한 지역별 인증 절차를 통해 학교의 학교 자율시간의 선택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플랫폼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자율시간이 이제 출발 단계라는 점에서 지역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에 탑재될 인증 과목과 교과서의 양이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교원의 해당 플랫폼 방문과 활용이 저조하여 플랫폼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결국 플랫폼의 활용이 더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이 플랫폼에서 지역별 교과서의 인증 요건 및 절차를 제시하는 한편 그에 따라 새로운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학교가 교과서의 인증 절차별로 인증 요건을 해당 플랫폼에 차례대로 제출하면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학교의 과목 개설은 시도 교육감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의 플랫폼 안에서도 인증 요건 및 절차는 지역별로 제시하여 지역 내 학교의 교과서 인증 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한편 지역별로 관련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인증 요건 및 절차를 제공하는 섹션에서는 새로운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학교가 인증 요건 및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련 해당 플랫폼에 올리고 관련 전문가가 그에 대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컨설팅 내용과 결과를 탑재하는 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 나. 자유학기과 진로연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 1) 자유학기의 개선을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중학교는 자유학기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활동과 주제 중심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학기의 편성·운영은 단순히 1개 학기의 특정 시간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하지 않고 해당 학기 전반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취지로 반영되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생활과 학습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 2022a: 22).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에 다루어지는 교과목의 교과서는 다른 학년의 교과목에 비하여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와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구성과 제시되는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및 제시 방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초등교사가 자문 또는 검토를 위해 참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기간, 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가 이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

가 전체의 일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반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22).

따라서 이 시기의 교과서는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된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에서의 관련 선택 과목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교과서의 진로연계 교육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안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 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그 외의 변화를 반영한 교과서 개발 방향

##### 1) 기초소양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방향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포함하는 기초소양은 학생들이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및 수리적 정보의 유형과 수준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중학교 학생들의 세 가지 기초소양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앞서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성취기준 각각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분석하고 그 이전 학년(군)까지 학습하였던 국어, 수학, 정보과의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그 내용을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의 성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및 수리적 정보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각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기초소양의 수준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학생의 기초소양 실태를 고려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방안을 해당 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 2) 교수·학습 방향의 실현을 위한 교과서의 개발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와는 달리 교수·


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학년군별 편제표보다 상위에 배치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충분히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등의 네 가지 교수·학습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방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 및 성취기준의 개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1]에서 제시한 각 하위 항목을 포함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중학교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 2022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시수 증감 범위 확대	• 시수 증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례 제시
	학교 자율시간 신설	• 학교 수준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국 단위의 종합 플랫폼 개발(지역별 인증 과목과 교과서 안내, 지역별 인증 요건 및 절차 안내, 지역별 인증 관련 컨설팅 제공 등)
자유학기의 개선과 진로연계 교육의 신설	자유학기의 개선	•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 및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및 제시(초등교사의 자문 및 검토와 초·중 교과서의 비교포함)
	고등학교 입학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 신설	•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진로 탐색, 고등학교의 유형, 선택과목의 유형 탐색과 관련 자료 제공
그 외의 변화	기초소양의 신설	• 성취기준별로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분석하여 학생의 학년(군)에 적합한 기초소양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제공
	교수·학습의 방향	•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이 충실히 구현되기 위한 중학교 교과서의 개발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의 실현, 자유학기과 진로연계 교육의 실현, 기초소양을 포함한 교수·학습의 방향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포괄하여 앞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요구, 교과 특성, 교사의 활용 편의성을 충분히 담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교육부(2022a).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2022b). 2015-74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포함).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331-14.  
 교육부(2022c).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2022d).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9].  
 교육부(2022e).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0].  
 교육부(2022f).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이승미, 이미숙, 이은경, 이수정, 강현석, 설규주, 박정유, 임용덕, 장경환, 최성이, 김영아, 임성은(2022).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연구보고 CRC 2021-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필자 소개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다.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책무성, 교육과정 거버넌스,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이다.